

2002년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마포상암지역건립에관한건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01 |
|----------|-----|

제안연월일 : 1997년 9월 6일

제안자 :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○ 2002년 월드컵 축구 전용경기장을 상암지역에 유치하여 마포구의 위상을 제고하고,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마포구가 도심권 상업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전용구장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국제규모의 체육시설이 전무한 서울 서북부지역인 상암지역에 축구 전용구장을 유치함.

○ 15년 동안이나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로 인하여 난지도 주변 주민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전용구장은 상암지역에 건립하여야 함.

○ 난지도 안정화사업과 상암택지개발사업을 전용구장 건립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함.

○ 전용구장 건립 대상부지가 시유지로서 예산과 보상절차가 불필요하며, 사업시행기간도 최소한 1년이상은 단축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음.

2002년 월드컵 축구 전용경기장 마포상암지역건립에 관한 건의안

○ 2002년 월드컵 축구 전용경기장을 건립함에 있어 서울의 서북부지역인 마포, 서대문, 은평, 용산 및 고양시 지역 등은 타지역에 비하여 국제규모의 체육시설이 전무하고,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도 뒤쳐져 있는 실정이나, 금번 마포상암지역에 국제규모의 전용구장이 건립되면 서울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상암, 난지도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의 혁신을 통해 지역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되며,

○ 또한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동안 전체 서울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상암지역 난지도에 매립함으로써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오염 등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감내한 서북부 시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전용구장은 반드시 상암지역에 건립되어야 하며, 그 결과 서북부지역의 발전도 기대되는 바입니다.

○ 경기도 고양시와 자유로에 인접해 있는 상암지역은 서울의 마지막 미개발 지역으로 토지이용이 용이하고, 현재 1,4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는 난지도 안정화 사업이 2000년도에 완료되면 생태계공원과 체육공원 등 대단위 시민편의시설이 조성되고, 지하철 6호선과 지하철 11호선, 신공항 철도, 가양대교, 제2성산대교가 건설됨으로써 교통여건도 양호하여 전용구장이용이 타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편리해 질 것이 확실시되며, 인근 마포로 및 양화로 지역에는 대형호텔(53층), 대형쇼핑센터 및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신축되고 있어 국제규모의 행사를 치르기에 매우 편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○ 상암택지개발사업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3만평 부지에 18,000여 세대의 아파트건립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월드컵 기간중 선수촌 등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, 대상부지 전체가 시유지로서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과 보상절차가 불필요하며, 사업시행기간도 최소한 1년이상은 단축될 수 있는 상암지역이야말로 여타 지역에 비하여 전용구장의 유치지역으로는 모든 여건과 당위성, 그리고 낙후된 서북부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효과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.

○ 따라서, 2002년 월드컵축구 전용경기장은 지역이기를 초월하여 반드시 마포상암지역에 건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주민의 대표기관인 마포구의회는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.

건 의 사 항

1. 2002년 월드컵축구 전용경기장은 서울 서북부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15년동안이나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온 인근지역 시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마포상암지역에 건립할 것.

1. 상암지역은 신공항철도와 지하철 6호선 및 지하철 11호선의 통과와 가양대교, 제2성산대교가 건설됨으로써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 등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더 양호해지고, 인근 마포로 및 양화로지역에는 대형호텔, 대형쇼핑센터및 각종 편의시설 등이 신축되고 있어 외국인의 이용이 매우 편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상암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18,000여세대의 아파트 건립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, 월드컵 기간중 선수촌등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.

1. 전용구장의 대상부지가 시유지로서,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과 보상절차가 불필요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기간도 타지역에 비하면 최소한 1년이상은 단축될 수 있고, 모든 여건과 당위성, 그리고 서북부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기대효과와 통일을 대비한 측면에서도 전용구장은 상암지역이 최적지로서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.

1997년 9월 8일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 일동